

2023. 7. 19.(수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7월 1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

장애인 복지정책과장	고광현	02-2133-7440
장애인탈시설팀장	김은영	02-2133-7367
담당자	이유섭	02-2133-7456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6쪽

서울시, 탈시설 장애인 700명 자립실태 전수조사

- 시, 8월~9월까지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,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효과 검증
- 자치구 조사기관 방문 통해 35개 문항 청취·읽기 쉬운 조사표, 점자 조사표 등 개발 및 활용
- 전수조사 결과는 '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'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
- 지난 2월, 탈시설 장애인 대상 예비조사·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 돌봄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재확인

-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, 삶의 질과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.
- 서울시는 그간의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, 효과적인 '탈시설 프로세스'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.
 -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해 거주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.
-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이다.

-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5년 단위로 두 차례 ‘탈시설화 기본계획’을 수립한 바 있다. 지난해 6월에는 『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자립생활주택, 지원주택 등 주거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,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.
-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·퇴소 과정의 적절성, 생활 및 건강실태,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.
- 조사는 시·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.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, 주거환경, 보건의료 및 건강, 일상 및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청취한다.
- 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의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.
- 특히, 서울시는 탈시설 찬반측과 중도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,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,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.
- 탈시설 관련 현장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이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오고 있다.
- 시는 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‘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’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.

< 시, 지난 2월 예비조사 실시...조사결과,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화된 '돌봄서비스' 제공의 필요성 재확인 >

□ 한편,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2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퇴소 과정의 적절성, 의사소통 정도, 의료·건강관리 실태, 자립생활 실태 등을 내용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.

○ 거주시설 A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지난 2021년 폐지되면서 퇴소한 장애인 일부 38명이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한 지원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.

□ 조사 결과, 시는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.

○ (퇴소과정의 적절성) 조사대상 장애인 모두 본인, 보호자 등으로부터 징구된 퇴소동의서는 구비. 퇴소결정은 본인, 시설관계자(퇴소위원회), 형제자매, 부모 순이며 퇴소사유로는 시설이 폐쇄되거나 자립생활을 원해서 퇴소한 경우가 많았으며,

○ (의사소통 정도) 조사 장애인 38명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9명이며, 29명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다.

< 조사대상자 현황 >

계	연령			장애정도		의사소통			장애유형 (주장애)			
	40대 이하	50대	60대 이상	중증	경증	가능	곤란	심하게 곤란	지체	뇌병변	발달	시각
38	9	10	19	38	-	9	9	20	6	13	18	1

○ (의료 및 건강관리 실태) 조사장애인 38명 모두 심한 장애인이며, 이 중 2개 이상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은 27명이고 중복장애인 중 최중증 장애인은 7명. 최중증 장애인 7명 중 6명은 심한장애 외에 비위관, 위루관, 도뇨관, 인공호흡기 필수 장애인이며, 1명은 다중복(지적·시각·뇌병변)

장애인임. 38명 장애인의 평균 활동보조 시간은 월 626시간(일 20.8시간)으로 5명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,

- (자립생활 실태) 조사대상 장애인 38명 모두 생계·주거급여, 장애연금,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으며, 이 중 17명은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다.
- (지역사회 정착 정도) 의사소통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 20명을 제외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곤란한 장애인 18명 중 15명은 현재의 삶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었고,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이에 서울시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,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. 이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,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, 탈시설 후 삶에 만족하는지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목표다.

□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여,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참고자료 각 1부. 끝.

□ 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'09년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
- 조사내용 : 입·퇴소 과정의 적절성,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, 탈시설 만족도 등
- 조사기간 : '23. 8 ~ 9월 ※조사업체 선정(6월)
- 조사방법 : 시·자치구 공무원, 전문 조사업체와 2인 1조 동행조사
- 결과조치 : 제3차 서울시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
- 소요예산 : 67백만원(시비 100%)

□ 실태조사 문항(안)

-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(10문항)
 - 시설 거주 기간, 퇴소한 시설명, 시설 입·퇴소 결정자, 입·퇴소 이유
 - 퇴소 과정의 힘든 점, 퇴소 후 어려움, 퇴소결정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
- 주거환경 (3문항)
 - 주거 내외 환경 양호 정도, 현재 주거형태 및 만족도 여부, 불만족 사유 등
- 보건의료 및 건강 (5문항)
 - 시설 퇴소 전·후의 건강 상태, 현 건강 상태, 정기적인 건강관리 여부 등
- 일상 및 자립생활 (6문항)
 - 일상생활 도움을 주는 대상, 도움을 받는 부분, 외출 사유, 여가활동 참여
 - 탈시설 만족도(신체, 정신, 경제, 사회, 전반적인 삶),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할 영역
 - ※ 그 외 일반현황(9문항), 사회관계(2문항)

□ 향후계획

-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: '23. 8 ~ 9월
-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 수립 반영 : '23. 하반기

Q1.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서울시는 그간 탈시설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퇴소 관련 적정성, 의사소통 정도, 건강상태, 자립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'탈시설 프로세스'를 마련하겠습니다.
- '09년 이후 탈시설하여 지역에 정착한 700명을 전수조사하여 그간의 서울시 탈시설 정책을 검증, 향후 합리적인 탈시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

Q2.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의 질문 문항은 무엇입니까?

- 총 35문항으로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조사업체 조사원이 2인 1조로 장애인 가정에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대면 질의 형식으로 조사하게 될 예정입니다.
- 질문내용은 장애인의 일반 현황, 거주시설 입·퇴소 과정, 사회적 관계망, 주거 환경 및 건강상태, 퇴소 전·후의 만족도, 서울시의 탈시설 정착에 필요한 지원책을 묻는 일상 및 자립생활로 구성되었습니다.

Q3. 합리적인 탈시설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-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탈시설화 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,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